

반환점 돈 민선 7기 성과와 과제

문인 북구청장

“구민중심·현장중심 혁신행정으로 ‘행복복구’ 만들 것”



“민생, 동행, 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성과가 있었던 분야는 더욱 발전시키고, 조금 미흡했던 분야는 착실히 검토하고 보완해 복구를 광주의 중심 차구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취임 2년을 맞은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9000억 원 시대를 열고 코로나19로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후반기 구정 각오를 밝혔다.

민선 7기 절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문 구청장은 지난 2년 구정평가에 대해 “지난 2년은 ‘구민중심 혁신행정’이라는 구정철학을 바탕으로 재정난 극복과 복구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왔다”고 자평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복구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구민의 염원 속에 미래 성장 동력을 높여나가는 시기였다고 판단했다.

복구는 특히 4차 산업 시대의 흐름에 맞춰 드론 산업 육성에 주력한 결과, 2019년 복구 대추동에 조성한 복구드론비행연습장이 지난 3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실기시험장’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드론공원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문 구청장은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예산 9000억 시대...민생경제 집중

AI·드론 등 미래 성장동력 기반 다져

이웃이 이웃 돌보는 복지 공동체 박차

사는 행복복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는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제1호 공약으로 ‘경제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또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해 AI(인공지능), AR·VR(증강·가상현실), 드론 등 관련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새로운 사업영역 창출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문 구청장이 이처럼 기초 자치단체에선 해내기 힘든 미래 산업과 지역 기업지원 등에 집중하는 데는 그의 경력이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

광주시 행정부시장 출신인 문 구청장은 공직생활 동안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광주시 복구 부구청장 등 중앙·지방 행정 기관을 두루 거친 ‘행정의 달인’이다.

문 구청장은 이 같은 행정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광주시,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해 드론 시험지원센터 유치, 드론협업체 구성,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드론 특화도시로 발돋움하는 계획을 하나하나 현실화하고 있다.

문 구청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역 곳곳을 누비며 민생경제, 동행복지, 도시재생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복지 분야의 성과도 돋보인다. 복구는 올해 2회 추경 기준 사회복지비가 73.2%를 차지할 만큼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위기가구를 돌보는 복지 1촌 맺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구 안심동행 앱 서비스, IoT 응급안전알림 기기 설치 등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또 금융복지, 아동친화도시 인증,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여성행복응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복지시스템을 통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문 구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든 구민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분부를 운영하고 소상공·중소기업 특별보증 지원, 종합 컨설팅 사

업을 확대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복구는 정부 등으로부터 역대급 수상 실적도 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수상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도 1000억원이 넘는다.

복구는 지난 2년 동안 각종 정부 평가와 공모에서 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등 224회를 수상해 총 957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으며, 310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도 받았다. 1200억원이 넘는 인센티브는 복구 발전 사업에 고스란히 투입되고 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도 수두룩하다. 문 구청장은 “대학타운형 및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복구 종합체육관 건립 등 복구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구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가장 큰 힘이 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문 구청장은 또 “지난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혁신 자치구’ 선정,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전남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등 혁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구민중심·현장중심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민선 7기 공약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제방역

다중이용시설 8000여곳 대상

광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제방역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광주시는 3일부터 10일까지 일제방역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자, 군인, 공무원 등 각계각종 1만여 명이

투입해 지하시설,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관내 800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방역을 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도매시장, 지하철 등 시민이 자주 찾는 관내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5개 자치구별로 지하시설, 종교시설, 교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1000인의 아빠단’ 온라인 발대식

5개 분야 육아 미션 수행

“코로나19 가정 육아에 아빠도 적극 참여하세요”

3~7세 자녀를 둔 아빠의 육아참여모임인 ‘광주, 1000인의 아빠단’이 가정별 온라인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00인의 아빠단은 이번 온라인 발대식을 계기로 활동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1000인의 아빠단은 가장 먼저 오는 11월까지 보건복지부 1000인의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멘토단이 제공하는 놀이, 교육, 일상, 건강, 관계 등 5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육아 미션 등을 수행하며 ‘함께 육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는 오프라인 발대식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온라인 발대식으로 전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1996년부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실천 기업을 인증·포상하는 제도다.

올해 심사에는 전국 120개 기관이 신청해 총 36개 기관이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 중 공공기관은 광주도시철도공사를 포함한 9곳이 선정됐다.

공사는 이번 심사에서 창립 이후 17년간 단 한 번의 노사분규도 없는 무분규 사업장으로, CEO 현장 간담회와 모범적인 노사협의회 실시, 공무직 처우개선, 노동자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노사관계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점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코로나19 반드시 극복 하세요”

에코드림 마스크 2만장 등

지역사회 온정 잇따라

광주시 기부물품 기탁식

광주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에코드림, ㈜더올바른, ㈜피드백스와 기부물품 기탁식을 했다. <사진>

광산구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 ㈜에코드림은 비말차단 마스크 2만400장을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다.

김선태 ㈜에코드림 이사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불안한 시민에게 힘을 보태고자 기부를 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약외품 제조업체 ㈜더올바른도 보건용 마스크 2만장을 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다.

안병영 ㈜더올바른 대표는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육 돕기 위해 마스크 기부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드백스는 항균소독제 1000개를 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박상운 ㈜피드백스 대표는 “코로나19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소독제를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나눔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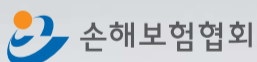
이날 기탁된 감염예방 물품은 취약

계층 지원 및 방역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위기상황에서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동참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는 시민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며 “이보다 더 큰 위기도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이겨낸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도 광주공동체가 원팀이 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된 감염예방 물품은 취약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